



# 이것이 적극행정,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

‘적극행정 문화 확산’ 사례



국무조정실

'적극행정'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

말 그대로 공직자가

'보다 더 적극적으로' 행정을 처리하는 일!

공직사회에

적극행정 문화를

확산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.



#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해결사가 되다



前

동해안 산불로 소상공인 376개 업체,  
1,465억원의 대규모  
피해 발생



後

소상공인 지원제도  
개선방안 마련  
(96억원의 국민성금 소상공인에게 배분,  
재해자금 한도 상향 등)

▶ 피해 소상공인 신속 지원

## ✓ 적극행정

- 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·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해결사 18명 현장 투입 및 운영 총괄
- 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소상공인 밀착 지원



중소벤처기업부 이지훈 주무관



# 적극적 조치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다



前

2019년 4월 고성 산불 발생 시,  
기상상황 분석 결과  
속초 시내로  
피해 확산 우려



後

강원 산불 진화에  
전국 소방력 동원  
▶ 재난 피해 최소화

## ✓ 적극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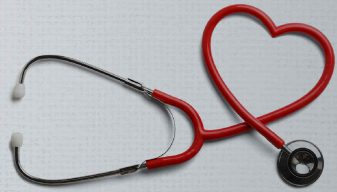
- '전국단위 소방력 요청' 신속 결정
- 강풍경보로 라시도 소방력을  
강원도로 동원하기 힘든 상황에도  
전국 소방본부에 직접 전화하는 등  
지휘부 설득



소방청 허승택 소방경



# 적극적인 이권 조정으로 소아당뇨 환자의 눈물을 닦아준다



前

2017년 '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' 중 일부 과제가  
다양한 이해충돌로 지연  
(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,  
인슐린 자동주입기 건보 급여화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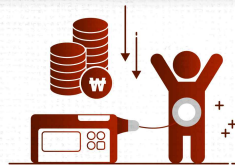
## ✓ 적극행정

- 현장점검(3회),  
이해관계자 간담회(4회)
- >관관 쟁점 적극적으로 조율



後

'인슐린 자동주입기 건보 급여화' 해결  
(국내 최초 자가사용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사례),  
소아당뇨 어린이 안내지침서 배포  
▶ 환자의 경제적·심적 부담 개선



국무조정실 이홍권 과장

# 진심 어린 소통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안착시키다



前

‘공유주방 시범사업’ 추진 중  
주변 상권의  
극심한 반대와 민원 봉착

## ✓ 적극행정

- 끊임없는 방문을 통해 주변 상인 설득
- 시범사업 업체의 사후관리에도 노력



後

공유주방 관련 위생가이드라인 마련,  
다수 사업자 신고 가능 등  
시범사업 추진

▶ 요식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의 발판 마련



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주무관



“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에 따라  
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
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.  
국민의 애환을 듣고 공감하며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 
국가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.”

오늘 더 달라지겠습니다.

**이것이 ‘적극행정’  
‘달라진 대한민국’입니다.**



국무조정실